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 美 고섬어워즈 공로상

“기적이 계속되는 기분...앞을 향해 계속 나아가겠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리즈를 만든 황동혁 감독이 미국 TV 시리즈 시상식인 고섬어워즈에서 공로상(Creat or Tribute)을 받았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더 고섬 2025 TV 어워즈’(이하 고섬어워즈)의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된 황 감독은 영어로 준비한 수상 소감에서 “기적이 계속되는 기분”이라고 밝혔다.

황 감독은 “2021년에 처음 이곳에서 상을 받았을 때 ‘이 모든 것은 기적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서 다시 이 영광스러운 트로피를 손에 들고 있

으니 기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 트로피의 뜻을 가슴 속에 품고,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황 감독은 이날 시상식에서 넷플릭스 관계자, 출연진, 그리고 어머니께 공을 돌리며 “2009년 ‘오징어 게임’ 극본을 저작하셨던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그때 누군가 재극본을 받아줬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오징어 게임’은 없었을 것”이라며 “수많은 거 절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진심으로 공로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고섬어워즈 공로상 받은 황동혁 감독

〈방송화면 캡처〉

황 감독은 “만약 그때 누군가 재극본을 받아줬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오징어 게임’은 없었을 것”이라며 “수많은 거 절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인태의 오늘의 운세

음력 5월 10일

천문역원 (062)673-2427



쥐띠: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다.

36년생 음도 있고 사람 없다는 48년생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걸 명심하라. 60년생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는 않는다. 72년생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힘이 되어준다. 84년생 힘들면 쉬어가고, 막히면 돌아가라. 96년생 아직은 정체된 상태이니 자중하자. 08년생 무엇보다 자신감이 결여돼 있다. 자신감을 가져야겠다.

행운의 수: 1·3 행운의 색: 자두색



소띠: 분위기가 좋아지고 능률도 향상된다.

37년생 고집을 접고 충고를 받아들여라. 49년생 끝으면 살고 흘어지면 죽는다고 했다. 61년생 오늘은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다. 73년생 좌중우들하는 힘든 날이 예상된다. 85년생 절대 웃기 사람과 대립 마라. 97년생 소문난 진지에 먹을 것이 없듯이 계획은 고나실속이 있다. 09년생 호흡이 척척 맞아 떨어진다.

행운의 수: 4·5 행운의 색: 빨간색



호랑이띠: 중요한 계약이 성사된다.

38년생 진짜 내 편은 뜻밖의 인물일 것이다. 50년생 이상과 현실은 전혀 다른 것이다. 62년생 과거의 질병이 재발할 수 있으니 미리 잘 체크해라. 74년생 이제는 겸손으로 평온을 유지할 시기이니 지난 과거는 모두 내려놓아라. 86년생 노력만 한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98년생 가족간에 대화가 필요하다. 마음을 터놓는 것이 좋다. 10년생 혁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주장을 하지 마라.

행운의 수: 6·9 행운의 색: 주황색



토끼띠: 순풍에 빛나듯하다.

39년생 성가신 일이 생겨도 일단 한내지 마라. 51년생 과거에 밭을 잡힐 수 있다. 63년생 마음에 어유가 느껴지는 날로 조바심 내지 말고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75년생 눈에서 떨어지면 마음에서도 떨어지는 법이다. 87년생 세상에 오르지 못할 나무린 있다. 99년생 긴 시간 동안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몸에 해롭다.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자. 11년생 다수의 평가가 옳으니 귀담아들어라.

행운의 수: 1·8 행운의 색: 은색



용띠: 귀인을 만나 새로운 출발을 꿈꾼다.

40년생 설마가 사람 잡는다. 52년생 솔리를 따라면 후회할 일이 없겠다. 64년생 거짓된 천인상에 속지 마라. 76년생 오늘은 집 밖에선 먹을 복이 없으니 일찍 귀가하라. 88년생 비록 적은 재물이지만 들어온다. 가정이 화목해진다. 00년생 우연같이 보여도 필연인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 12년생 생각만 하다가는 그저 꿈으로 끝날 수 있다.

행운의 수: 0·1 행운의 색: 감색



뱀띠: 몸을 낮추고 적절한 때를 기다려라.

41년생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겠다. 53년생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힘든 일도 술술 풀린다. 65년생 히말리아 칼바람처럼 찬 바람 쟁쟁 부는 날이다. 77년생 구름이 걷고 헛살이 비치듯 행복한 하루다. 89년생 가까운 사람과 돈거래를 하지 마라.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된다. 01년생 알게 되면 머리만 복잡해지니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라.

행운의 수: 5·7 행운의 색: 살구색



말띠: 뒤집어 생각하면 길이 보인다.

42년생 음지가 양지가 되는 날이다. 54년생 행복은 만족과 탐욕 속에 숨어 있다. 66년생 혈암을 끌일 만한 일이 있다면 더 환경을 확장하되, 78년생 즐거운 일을 남과 함께 나누면 배로 이득이 있을 것이다. 90년생 의심이 가고 마음이 나가지 않으면 철저히 허락한 후에 결정하자. 02년생 말만 들어도 고마운 마음이 들겠다.

행운의 수: 4·6 행운의 색: 다흥색



나비띠: 기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43년생 어설픈 처방은 위기를 부른다. 55년생 지금 높지면 두고 두고 후회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하라. 67년생 순간적인 감정에 빠지면 길게 후회하는 일을 만들 수 있다. 79년생 일의 성과가 나타나는 날이다. 그러나 자만하지 마라. 91년생 한단계 올리기 어렵고 하다 가한 단계 내려갈 수 있다. 03년생 모든 것을 다 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자신은 물론 여러 사람을 위한 것이 된다.

행운의 수: 2·8 행운의 색: 파란색



원숭이띠: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44년생 음지가 양지가 되는 날이다. 56년생 궤도를 이탈하는 상황이니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라. 68년생 아픈 증상이 나아지다가 더할 수 있으니 조금 나아졌다고 방심하면 안된다. 80년생 먼저 남을 속이면 자신도 남에게 속게 되니 솔직해야 한다. 92년생 자신의 능력을 을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04년생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게 된다.

행운의 수: 4·5 행운의 색: 황금색



닭띠: 대박이 아니면 쪽박이니 신중하라.

45년생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57년생 너를 깃발에 물이 빠져나가는 때이니 도처에 돈이 될 만한 것이 널려있다. 69년생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실행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 81년생 서두를 수록 결과와는 멀어지니 느긋한 마음으로 진행하자. 93년생 원치 않은 사립이 디자이너를 수 있다. 05년생 거의 매일 얼굴을 보고 있으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보라.

행운의 수: 3·6 행운의 색: 빨간색



개띠: 하늘이 내 편이니 걱정을 말라.

46년생 공식은 대 풍 나고, 팔 풍은 대 팔 낫다. 58년생 제대로 선을 긋지 않으면 나중에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70년생 자신의 일처럼 성의를 갖고 임하면 큰 보상이 따를 것이다. 82년생 똑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다. 94년생 이미 손길이 따른다. 59년생 리워드를 더해나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 05년생 거의 매일 얼굴을 보고 있으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보라.

행운의 수: 2·8 행운의 색: 흰색



돼지띠: 말보다 실이 중요하다.

35년생 어떤 기준도 없이 주변의 말만 믿고 따라가다가는 순해 보게 된다. 47년생 감사하게도 주위의 도움이 손길이 따른다. 59년생 긍정적인 힘을 믿어보라. 71년생 큰 이익이 따려주니 일이 귀에 걸리겠다. 83년생 일부터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보내라. 95년생 재물이 원성해지니 수입이 늘어난다. 07년생 최상의 경우만 생각하지 말고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두어야 한다.

행운의 수: 1·4 행운의 색: 노란색

광주매일TV

광주매일신문 영상뉴스 제보·문의 062) 650-2010

프로그램 안내 kjdaily.com PC·스마트폰 YouTube Facebook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장스케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 현장 [기획] 김동연 경기지사(민주당 예비후보) “새 대한민국...”

[뉴스] 5·18 민주화운동 제45주년 ‘옛 광주적십자 병원’ 개방 [이철우 경북지사(국힘 예비후보) “초일류 경제대국...”]

[제12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3강 최광현 [LIVE] 동북아 AI 첨단농산업 현황과 발전전략...”]

최인태의 사주칼럼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

필자는 올해 1월 1일 2025년 국운에서 대한민국 국운은 위기와 기회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된다고 했다.

전(前) 정권(政權)은 을사년(乙巳年) 음복(陰木)과 음화(陰火)의 기운 속에서 치열한 다툼과 시비,

암투를 펼치지만 을사년은 개운(開運)의 상징인 진궁(震宮)과 새

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손궁(巽宮)의 해가 돼서 변화를 바라는 국민 여론과 국운(國運)의 흐름으로 정

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던 그의 관상은 말해준다. 그의 눈은 봉황의 눈보다는 짧고 눈의 크기는 가지런한 단봉안(丹鳳眼)과 기려

기의 눈이라는 안안(懶眼)의 형태를 취한다.

단봉안(丹鳳眼)은 문장이 뛰어

나고 논리적이고 안안(懶眼)은 의 기운(氣)이라고 해 일의

처리는 확실하고 정의로움을 지향

하는 면이 있다. 두 눈의 형태는 가

늘면서 크지 않은 형태로서 전형적

인 외유내강의 강한 정신력과 명예

를 상징하는 귀(貴)의 대표적인 눈

이다. 관상이 곧 운명이라는 말이 있다면, 그의 눈은 강력한 리더쉽을

말해준다.

정권의 공백과 세계 경제의 침체, 그리고 동북아를 감도는 전운(戰雲) 속에서 한국은 거대한 물줄기 를 넘어야 할 기로에 섰다. 그 격랑의 시대, 이제 명은 대한민국을 다시 세계 중심으로 이끌 대장정의 깃발을 들었다.

그의 관상은 말해준다. 그의 눈은 봉황의 눈보다는 짧고 눈의 크기는 가지런한 단봉안(丹鳳眼)과 기려

기의 눈이라는 안안(懶眼)의 형태를 취한다.

단봉안(丹鳳眼)은 문장이 뛰어 나고 논리적이고 안안(懶眼)은 의 기운(氣)이라고 해 일의

처리는 확실하고 정의로움을 지향

하는 면이 있다. 두 눈의 형태는 가

늘면서 크지 않은 형태로서 전형적

인 외유내강의 강한 정신력과 명예

를 상징하는 귀(貴)의 대표적인 눈

이다. 관상이 곧 운명이라는 말이 있다면, 그의 눈은 강력한 리더쉽을

말해준다.

진정한 지도자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이 아니라, ‘장구지략(長驥之略)’의 통찰을 지닌 자다. 이제 그에

게 필요한 것은 ‘자기보다 큰 그릇’을 곁에 두는 일, 자신과 다른 계층을 품을 수 있는 ‘음양회평지인(陰陽和平之人)’이 되는 것이다. 백두산 호랑이처럼 전장의 중심에 서서,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를 열어갈 리더가 돼야 한다.

지금은 시작이다. 진짜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만들어진다. 모든 국민이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하자.

TV 프로그램				

<tbl_r cells="5" ix="3" maxcspan="1" maxrspan